

## 忍辱의 梅花

俞炳禮

(誠信女大 中語中文學科)

물질만능과 도덕 불감증의 풍조가 이 사회에 미만한 가운데, 작금의 大學入試 不正 사건에 이어 최근 일부 교수들의 파행적 작태가 심심치 않게 대중매체를 타고 보도되고 있다.

거액의 토지물 기부받고 전직 목사를 교수로 임용하려다 학내·외로 물의를 빚고 학장직에서 물러난 교수가 있었는가 하면, 학생의 작품을 도용 전시하여 망신당한 교수도 있었다. 복잡한 여성 편력으로 여인의 칼 아래 비명횡사한 교수가 있었는가 하면,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 그동안 은폐되어 왔던 不正入學의 전모가 드러나 구속당한 교수들도 있었다. 물론 이 사회에는 불철주야 학문연구에 몰두, 주변의 소급이 되어 후학 양성에 헌신하는 교수가 대다수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하지만 세상이 혼탁해지면 질수록 이 사회는 교수들에게 ‘흙탕물 속에서도 청아한 자태와 은은한 향기를 피우는 한 송이 연꽃’이 되어주기를 요구하고, 엄동설한 속에서도 고고한 절개를 지키는 기결한 梅花가 되어주기를 갈구한다. 그래서 교수에게만은 ‘인간이기에 저지룰 수 있는 과오’에 대해 관대해지기를 거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최근 문제화된 교수가 비록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教授職의 道德性에 던져진 파문은 자못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말이 이제 옛 전설의 하나로 치부된 지는 이미 오래이다. 어디 그뿐이랴? 스승의 이름이 에완용 강아지 이름처럼 거침없이 불려지고, 심지어 “××그 자식, ××그 애” 등으로 호칭되기까지 이룬 것이 이 땅 수 많은 교수들이 처해 있는 위상의 현 주소이다. 이쯤되고 보면 “교수는 있으나 스승은 없고, 학생은 있으나 제자가 없다”는 개탄마저 무색해진다. 어찌하여 스승으로서의 교수의 위선은 이토록 실추된 것일까? 물론 근대 이후 문화·정치·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와 아울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교수의 사회적 존재방식과 사제간 인간관계에 오늘날 이처럼 훼손된 양상이 초래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외부 상황에 그러한 위상균열의 책임을 슬쩍 전가시키고 짐짓 돌아서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을 뿐더러 양심에도 부끄럽다. 그리하여 잘못된 자신에게서 찾으라는 反求諸身의 교훈을 되새기며, 지극히 세삼스러우나 이러한 세태 속에서는 교수의 본분과 역할에 대한 自己省察이 한번쯤 필요할 듯하다.

나는 우선 내가 敎壇에 서기 전 학생시절에 나의 눈에 비쳐진 교수님의 이야기부터 해보

고 싶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대학은 수 많은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지향하는 인생의 한 목표이다. 그런만큼 대학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고, 그 기대의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교수라는 인격적 제도에 쏠리기 마련이며, 이러한 경향은 신입생 때만이 아니라 대학기마다 반복되어 나타난다. 나 자신도 예외는 아니어서 가슴 설레이는 심경으로 강의시간을 기다리며, 새로운 인간관계의 형성과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감명깊은 지식의 실천을 고대하였다.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 한 학기 두 학기 그리고 또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최고의 知性과 良心의 상징이어야 할 교수님들 중에는 시경 모리배들과 별 차이가 없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차츰 깨닫고야 말았다. 이는 어찌면 주어진 환경이 유독 그러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어찌면 내 성격 자체가 낙관적이기보다는 비관적이며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또 순진한 기대과잉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교내·외 학우들에게서 전해 듣기로는, 강사시절 그렇게 자상한 모습으로 열과 성을 다해 강의를 해주시다가도 일단 전임이 되고 나면 얼굴을 바꾸어 휴강을 밥먹듯하며 전혀 수업준비를 해오지 않고도 당당한 교수님, 학생들 앞에서 동료교수의 혐담을 일삼아 은연중 파벌을 조성하여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게 만드는 교수님, 은밀한 장소에서 기회가 주어지면 주문하지도 않은 마사지를 女제자에게 해주시려고 애쓰는 교수님, 학과행정의 제반 사항을 객관적 기준없이 私적으로 처리하는 교수님, 파리 목숨같은 시간강사 신분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며 군림하려드는 교수님 등 등 실망에 실망을 거듭시키는 이러한 일부 교수님의 片片像이 어찌 나만 보고 나단 전해들은 것이랴. 물론 이와는 반대로 우리 학생들 주위에는 어두운 밤 萬物이 잠든 정적 속에서 홀로 깨어 길없는 자들의 등대가 되기 위해 작고 노력하며 학생들에게 늘 격려를 아끼지 않은 달빛처럼 부드럽고 포근한 교수님이 계셨고, 이 사회의 어둠과 대결하는 양심의 기수가 되어 험난한 가시밭길을 가신 대쪽처럼 의연하고 깨끗한 교수님도 계셨다.

세월이 흘러 나눈 이제 요구하고 꼬투리를 잡는 '관객'의 입장에서 보여지고 비판당하는 '배우' (?)의 입장이 되었다. 처음 강단에 섰을 때는 그야말로 원대한 포부와 왕성한 열정을 지닌 실력있고 존경받는 교수가 되고자 꽤나 애썼던 것 같다.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재미가 났다. 학생들은 가끔 찾아와 귀가 즐겁도록 나를 치켜세워 주었다. 자신이 붙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最上이라는 오만같은 것도 슬며시 들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생겼다. 평소 그 사람의 연구경력으로 보나 행실로 보나 一無可取하다고 여겼던 사람을 우연히 만났더니, 마치 이 세상의 연구는 혼자만 하고 학생들의 존경은 온통 자기만 받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만이 아니라 그후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햇병아리 교수는 깨달았다. 아하! 이것이 바로 교수들이 빠지기 쉬운 我執과 自大的 단면이로구나!

교수 경력이 한 2년쯤 되었을 때부터였던가. 대학의 캠퍼스는 民主化의 열병을 앓느라고 한시도 편한 날이 없었다. 예거해서 무엇하랴만 민주화라는 명목하에 캠퍼스는 다종다양한

暴力이 횡행하였다. 열심히 강의를 준비해 가던 아무런 예고없었던 휴강이 수강생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유가 달려 일방적으로 통보된다. 이렇듯 되풀이되는 휴강과 불쾌감 속에서 그 누가 열심히 연구하며 강의할 것인가? 습관은 타성을 이룬다더니 슬슬 의욕이 저하되었고 그러다보니 강의준비가 부실해졌으며 급기야는 가끔 휴강하기를 바라는 厚顏無恥한 교수가 되어 갔다.

“나는 바람 颯이라 해도 너는 바람 颯이라고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자신의 부족함과 결함을 자주 깨닫는 나도 예외가 아니어서 자연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던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주기를 강조한다. 그리고 쑥스러운 일이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휴강을 하게 되면 가능한 한 補講을 해주고자 하며 쥐꼬리만큼 알고 있는 지식에다 어눌한 구변일지언정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려고 애쓴다. 비록 밀천이 한 시간의 강의로 다 떨어져 하루살이 신세를 면치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애써보는 것이다. 나의 시험 출제와 평가에 대해 학생들曰 “문항은 시간이 모자라 못쓸 정도로 많고 학점은 디(D)밖에 씨(C) 뿌릴 정도로 짜다.”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일단 공부라는 생각이 들면 흥미가 가서는 것이 人之常情인데 하물며 나처럼 구변없는 사람의 딱딱한 陳述式 강의를 듣는 일이란 분명 고역일 것이라는 생각이 가끔 든다. 그렇다고 해서 내 어찌 학생들의 구미에 맞추어 강의를 할소냐 싶어 내 방식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만다. 어느 대학이나 다 그러하듯이 과목마다 수강인원의 하한선을 정해 놓고 신청인원이 미달되면 폐강이 되는데, 그 後果인지 나의 이름으로 개설된 선택과목은 항상 흥행(?)에 참패, 閉講의 기로에서 헤매게 되었다. 몇 차례 고베를 드는 일이 거듭되자 이윽고 강의와 평가방식까지 바뀌가면서 학생들의 요구에 적당히 영합해 가는 明哲保身型 교수로 변신하였다. 결코 교수는 흥행주가 아닐진대 어찌서 관객 수와 인기에 연연해야 하는 것인지?

공자는 일찍이 後生可畏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팔목상대할 後學의 학문적 성과에 대한 칭찬과 아울러 자신을 두려우는 의미가 깃든 말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칭찬하고 이끌어주어야 할 후학들을 꺼리고 경계하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된다. 선배들의 이러한 행동을 후학들은 나름대로 분석하고 논평하는데, 가장 지배적인 衆論은 일부 선배들의 그러한 행동이 자신의 권위와 밥줄을 지키기 위한 졸렬한 자기보호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와 평설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어찌서 이러한 꺾뵈이 교수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회자되는지 한번 겹쳐하게 성찰해 볼 필요는 있다.

해마다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되면 학위논문 청구를 앞둔 대학원생들의 몸놀림이 한층 부산스러워진다. 행여 공든 탑이 무너지라 전전공공하는 그들의 초조한 모습을 보면 우선 안스럽기 짝이 없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의지하는 나이 많은 학생들도 있고, 결혼하여 가정은 이루었으나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가족부양에 허덕이는 가난한 家長 학생도 있다. 그런데 그들이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몇 차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공식적인 심사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심사를 받을 때마다 심사위원 한 명당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특별수고비란 명목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물론 식사는 응송하게 별도로 대접해야 한다.

학문탐구가 그저 무작정 좋기 때문에 아무 댓가를 바라지 않고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오랜 면학과정을 거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강단에 서서 자신이 축적한 지식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며, 그간의 노고와 노동에 상응하는 명예와 댓가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오늘날 대학에는 약 3천 여 명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강사들이 자신을 ‘대학 파출부’라고 자조하며 懷才不遇의 환을 품고 실의에 빠져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십여 년의 세월을 물설고 낫선 이국 땅에서 청춘을 바쳐 연구에 몰두하고 돌아와 몇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갖가지 이유로 곳곳에서 좌절을 당하고 낙망에 차있는 아까운 인재들이 많다. 學緣과 출신학교 등 외형적인 조건을 중시하거나 힘과 배경 심지어는 기부금에 의해 전임교수를 뽑는 현실에 대한 그들의 개탄에서 오늘날 대학의 저락된 위상이 다시금 개탄스럽다.

우리는 人生을 곧잘 연극에 비유한다. 그렇다. 광의로 보아 인생은 연극이다. 그러나 우리가 연출하는 연극은 단 1회에 한정된다. 이 한 번뿐인 연극무대에서 혹자는 만인의 갈채를 받는 화려한 역할을 맡아 열연하기도 하고, 혹자는 놀란 기러기 순식간에 푸드득 사라지듯 보잘 것 없는 배역을 맡기도 한다. 조명을 받는 주인공이라 해서 지나치게 자신을 뽐내어 과장된 연기를 하거나 초라한 단역이라 해서 지나치게 의기소침한다면 전체 극의 조화를 깨뜨리기 쉽다. 화려하다고 교만하게 굴지 말자. 초라하다고 비굴해지지 말자. 우리 모두 각자의 도덕적 가치기준에 준거하여 스스로의 배역에 충실할 때 이 사회와 대학은 좀 더 건강해지리라. ■